

소규모 액란 사업 참여로 안정된 경영 기반 마련

◇ 취재 / 김종준 기자
(jjun@poultry.or.kr)



▲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상지농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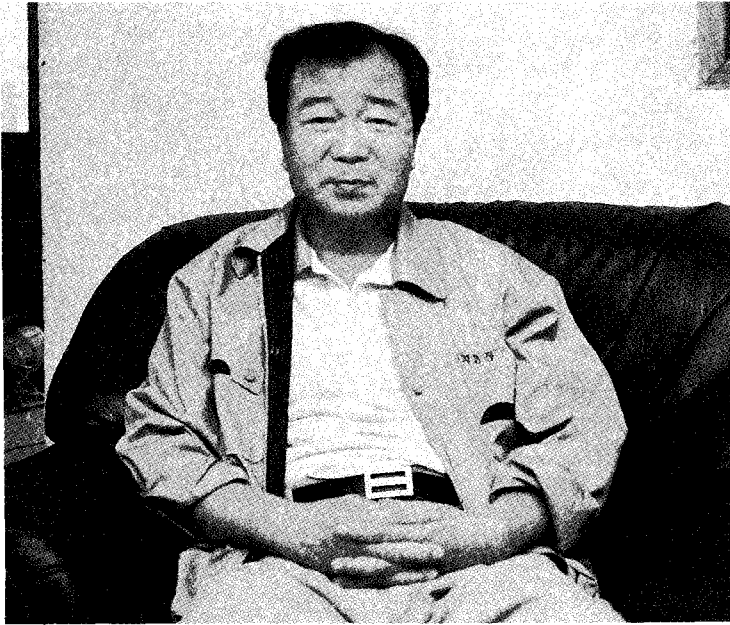
1. 생산 계란의 60% 액란 납품

상지농장은 용인시 백암리와 경계 지점인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에 자리잡고 있다.

상지농장 김문수 사장이 20여년 전 서울 천호동에서 양계 경영하다가 도시정비사업 의

하여 해월리로 이전하여 농장을 건립했을 때에는 몇 가구 살지 않는 산골이었는데 지금은 리조트, 전원주택, 대학이 들어서면서 산골다운 면모는 점차 잃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도로변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고, 사방 20~30km 인근에 양계농가가 없어 교통



▲ 난가공 산업의 발전은 지금 계란 소비 행태를 바꾸어야 가능하다는 김문수 사장

과 방역상 양호한 사육여건을 갖추고 있다.

8천평 농장부지에 성계사 5동, 육성사 1동, 계분장, 선별장, 할란장이 건립되어 있고, 성계 15만수와 육성계 3만수를 사육하고 있다.

성계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하루 약 12만개로 이중 40%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나머지 물량은 제빵 업체에 액란으로 판매하고 있다.

2. 23년 노하우가 버팀목

김문수 사장이 1979년부터 23년간 제빵업

체에 계란을 납품해 오고 있지만 계란 납품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적도 있다.

6년전 제빵 업계에서 난각 처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액란으로 납품 받겠다는 방침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처음에 몇 억원을 호가하는 액란 기계를 설치한다는 것이 여간 망설여지는 것이 아니었다.

기존 거래하는 업체이외에는 액란 판매처가 마땅치 않아 포기하고 싶었지만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현재는 2개 제빵업체와 1개 난가

공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할란 사업장은 계란 선별 작업장 바로 옆에 30평 규모로 시간당 1만 2천개의 계란을 할란



▲ 액란은 20kg 단위로 비닐 포장하고 플라스틱 통에 넣어 유통

할 수 있는 기계를 가동하고 있다.

보통 오전에는 선별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할란작업을 하게 되는데 할란에는 특·대란만이 사용된다.

하루 2천5백kg 액란을 20kg 단위로 비닐 포장을 하고 있는데, 포장시 비닐을 사용하는 것은 계란 품질을 바로 식별할 수 있으며, 작업이 손쉽기 때문이다. 포장된 액란은 플라스틱 통에 담아 유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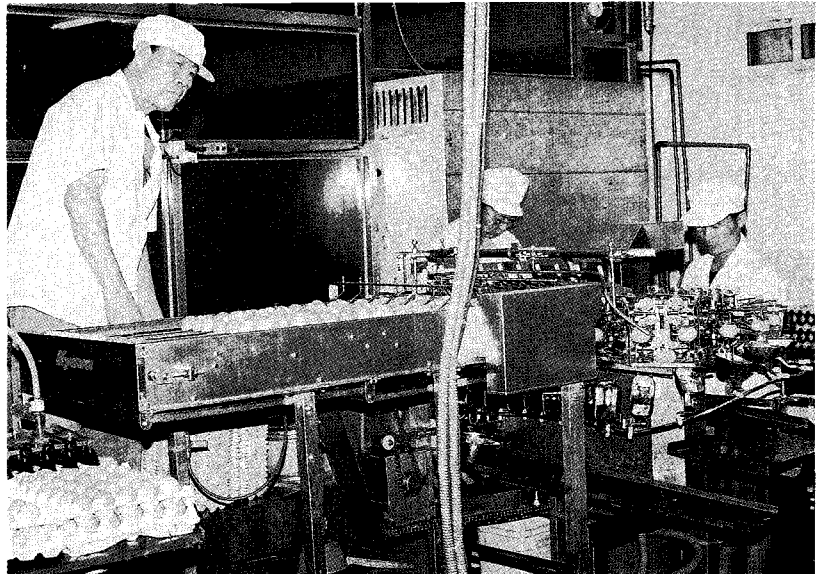
3. 가공비 보장이 최대 관건

상지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중 약 60%는 액란으로 유통되고 나머지 40% 계란은 일반 판란으로 상인에게 판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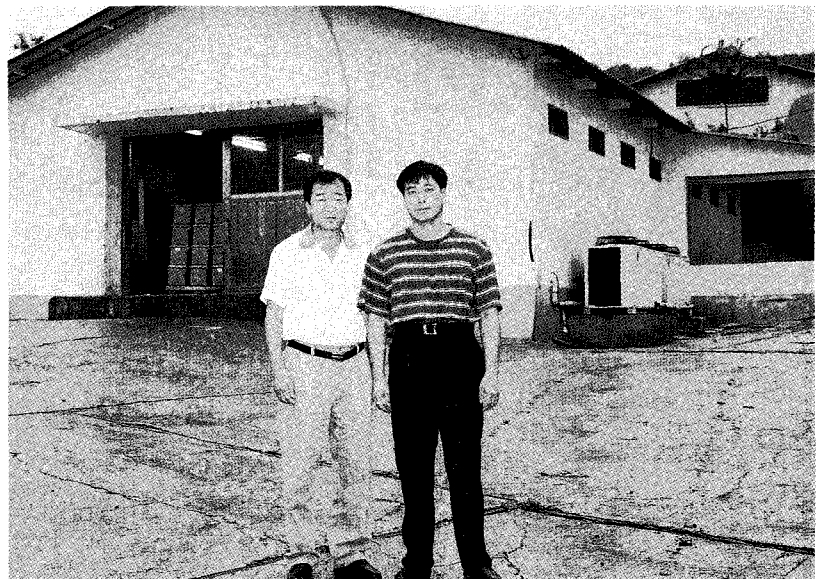
액란 판매비중이 높아 수익이 높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난가공업의 유통구조상 계란 할란시드는 가공비 개념이 없으며, 할란 작업은 1일 5~6명이 4~5시간 고정 투입되므로 인건비 부담도 크다는 것이다.

또한 납품 가격의 경우 상한선 90(원/개)이 있지만 하한선이 없는 상태로

난가가 높거나 생산비 이하로 내려가면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 상태이지만 수익 구조는 원란(계란) 판매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 시간당 1만2천개를 할란하는 기계 운용에는 5~6명의 고정 노동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 2대에 걸친 양계경영(김문수 사장(좌)과 김용재 부장(우))

김문수 사장에 의하면 최근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되면서 계란 품질 조건이 강화되고 있지만 계란 내용물에 대한 육안검사 및 정기적인 PH검사, 기타 위생검사 등을 통하여 아직까지 별 무리 없이 납품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항생제 잔류 물질 등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면 납품 규제가 더욱 엄격히 적용되면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4. 공업용은 특란, 가정용은 대란이 적합

우리 나라에서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란 비중은 15%가 넘지 않고 있으며, 가공 공장의 가동율은 30~40%에 머물고 있다는 의견이 지

배적이다.

김사장은 침체된 가공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과 같이 특란을 공업용으로 사용하고, 대란이하 계란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소비 행태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계란 생산성과 경제성 확보 없이 난 가공산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의 최근 질병 발생을 동향을 보면 매년 질병 발생회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생산비는 자꾸 증가되고 있고, 각종 환경 규제, 3D 업종 기피에 따른 인건비 상승, 대형 유통업체 출현에 따른 가격파괴 현상, 유통 시스템 변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양계**

음수소독 살균소독 세척소독 약취 및 해충란 제거

콧스프-X

● 놀라운 음수소독 효과

- 유효성분이 낮은 농도에서도 항균 효과가 우수해 음수소독시 설사병, 만성 호흡기 질병의 예방은 물론 적절한사용의 경우 치유효과가 있으며, 사료효율의 증대와 가스억제, 항생제사용 절감 등의 탁월한효과가 있습니다.

● 안전성 공인

- 충북대 동물의학연구소, EPA, FDA, USDA 안전성 등록

 (주) **협성환경**

본사문의전화 : (043) 536-3342

홈페이지 : www.hsdrq.co.kr

● 강력하고 광범위한 살균력

- 건국대학교 동물자원연구소, 미 ONYX 미생물연구소 등

● 강력한 침투력과 세척력

- EPA 5% 혈청테스트 통과, 음수라인 니플 막힘 해결

● 경수내구성과 지속효과

- CaCO₃ 750ppm이상 효과적, 안정화된 알킬배치 화학구조

● 약취 및 해충의 유충란 제거

- 탈취 효과 및 약취 원인균 실멸 유충란 살충효과